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3. 6. 23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미 주

- 미국, 노예해방 기념일을 앞두고 곳곳에서 총격사건 발생
 - 6.19 언론은 미국이 노예해방을 기념하는 '준틴스 데이'* 연휴간 축하행사를 하던 시카고, 워싱턴, 세인트루이스 행사장에서 총격 사건이 연달아 발생해 총 4명이 사망하고 최소 34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보도
 - * '준틴스 데이'는 남북전쟁 종전 후 마지막 흑인 노예가 해방되는 날을 지역별로 따로 추진해 오던 것을 바이든 행정부 집권 첫해인 '22년부터 연방 공휴일로 지정하여 시행

유 럽

- 영국, 새로운 대테러 전담부대 창설
 - 6.17 언론은 영국 정부가 새로운 특수부대를 창설, 대테러 작전 시 감시 및 인질구출 등 경찰과 보안국(MI5)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, 同 부대는 특수훈련을 받은 근접전투 전문가 230명으로 구성
 - ※ 현재 영국의 테러위협 수준은 심각(Critical) 바로 아래인 상당(Substantial) 단계
- 오스트리아, 성소수자 축제 테러계획 일당 검거
 - 6.19 언론은 오스트리아 성소수자 축제에서 ISIS 추종자인 14세 소년 등 3명이 테러를 시도하려다 개막 1시간 전에 경찰에 검거되었다고 보도
 - ※ 오스트리아 보안당국은 평소 SNS 등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성향을 드러낸 同人들을 위험인물로 지정, 감시
- 뉴질랜드, 中國식당서 무차별 도끼 테러로 4명 부상
 - 6.20 외신은 19일 뉴질랜드 오클랜드市에서 한 남성(23)이 중국식당 3곳에 들어가 무차별적으로 테러를 가해 총 4명이 부상을 당해 병원에 이송됐으며, 범인은 현장에서 검거되었다고 보도

아 · 태평양

- 파키스탄, 인도 정부가 힌두 민족주의 고수 시 대화 단절 단언
 - 6.15 언론은 파키스탄 외교차관이 힌두 민족주의 성향의 現 인도 정부와는 함께 일할 수 없다는 강경한 의사를 피력했으며, 반면 인도는 파키스탄이 자국 內 테러단체를 먼저 통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보도
 - ※ 최근 인도 외교장관이 파키스탄을 ‘테러리즘의 진원지’라고 칭한데 대하여 파키스탄 외교장관은 모디 총리를 ‘구자라트의 도살자’라고 비난하는 등 양국 間 비판 수위 고조
- 中, 신장지역 反테러 추진 강조
 - 6.20 언론은 ‘공안 사령탑’인 「천원칭」 중앙정법위원회·중앙서기처 서기가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방문해 상시적인 反테러 및 사회 안정 추진을 강조했다고 보도
 - ※ 同人은 ‘법률의 무기를 이용해 사회 안정을 지키고, 범죄를 척결해야 한다’고 발언

중 동

- 이스라엘, 북한·이란 ‘세계적 위협’ 비판
 - 6.15 이스라엘 외무부 대변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란을 북한에 빗대어 중동과 세계에 위협이 되는 세계 최대 테러 원동력이라며, 이란의 핵 능력 확보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
 - ※ 이스라엘은 최근 이례적으로 북한의 위성발사를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하였으며, 북한의 기술력이 이란과 시리아 등으로 확산되는 것을 우려

아프리카

- 말리, 자국 內 유엔평화유지군(MINUSMA*) 철수 요구
 - 6.17 언론은 말리 군정이 유엔평화유지군 주둔 후 오히려 치안이 악화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즉각 철수를 요구하였으며, 이로 인해 안보리에서 논의 중인 말리 內 임무연장 여부가 불투명해졌다고 보도
 - * 말리에서의 지하디스트 준동에 따라 민간인 보호를 위해 파견되었으나, '20.8월 집권한 現군정은 同부대의 말리 內 인권침해 조사 등을 두고 갈등

영국,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공원內 흉기테러

- '20.6.20 오후 7시경 영국 레딩市 중심부의 포베리가든 공원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3명이 사망하고 3명 부상
 - 테러범은 “알라는 위대하다”라고 외치면서 흉기로 공원에서 산책·휴식 중인 사람들의 머리와 목 등을 찌르고 도주하던 중 현장 인근에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
- 경찰 당국은 사건 초기까지 일반 강력범죄로 판단하였으나, 테러범 신원 확인 후 테러 사건으로 전환하여 수사를 진행
 - 테러범은 리비아 출신 「카이리 사달라(25)」로, '15~'19년 동안 폭행 및 흉기 소지 등 6건의 전과를 보유
 - '19년에는 보안당국에서 同人이 테러 목적으로 시리아로 가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조사하였으나, 실질적·즉각적인 위협이 없다는 판단하에 별다른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
- 경찰은 同人 휴대전화에서 ISIS 깃발 이미지와 ISIS 관련 영상 등이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, 同 사건을 이슬람 극단주의자에 의한 테러 사건으로 규정하였으며, 법원은 '21년 1월에 종신형을 선고

< 영국의 대테러 전담조직 >

- 영국의 대테러 전담조직은 대테러안보실, 보안부, 경찰로 구분
- 대테러안보실 : 2007년 3월 창설된 내무부 산하 대테러 정책기구로, 대테러 전략 구상 및 테러사건 범정부 대응, 대테러 법령 제정 등 업무 수행
- 보안부(MI5) : 내무장관 통제하에 국내외 테러위협 분석 및 국가 대테러정책 수립하고 특히 대테러 정보수집 및 감시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며, 2003년 합동테러분석센터를 설립, 테러정보 관련 핵심임무 수행
- 경찰 : 테러대응의 주무기관으로서 수도경찰청 특수작전국 산하 대테러본부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테러예방, 대응, 조사 등 실질적인 핵심기능 수행